

『예기(禮記)』의 희생제의 이론에 대한 예비적 고찰 : 로버트슨 스미스(W. Robertson Smith)의 이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안 지 연*

目 次

- I. 서론
- II. 로버트슨 스미스와 『예기』의 희생제의 이론의 유사성: 공동체·공공성
- III. ‘위계성’을 보다 강조하는 『예기』의 희생제의 이론
- IV. 희생물의 ‘피’에 대한 설명 비교: 로버트슨 스미스, 『예기』, 그리고 낸시 제이
- V. 결론

I. 서론

본고는 의례에 대한 유교 경전인 『예기(禮記)』의 내용을 종교 연구의 ‘대상’이 아닌 종교 연구를 위한 ‘이론’으로 바라보며 근대의 선구적인 의례 이론과 비교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중국의 종교를 연구 대상으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중국 종교 내에서 발견되는 이론적 논의를 종교 이론으로 간주하자는 마이클 푸엣(Michael Puett)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¹⁾ 그는 오랜 전통 속에 축적되어 온 중국의 의례 이론들에 주목하여, 이들을 진지하게 이론으로 받아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사과정

1) Michael Puett, “Critical Approaches to Religion in China,” *Critical Research on Religion* 1 (2013): 100.

들이고 현대의 이론적 담론의 장으로 가져오도록 촉구한 바 있다.²⁾ 이런 작업에는 중국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이론과의 비교 작업도 포함되는 것이므로,³⁾ 본고에서는 그 일환으로 『예기』의 내용을 현대 의례 이론의 초석이 된 로버트슨 스미스(W. Robertson Smith)의 의례 이론과 비교해 보려 한다.

『예기』는 의례 거행 방식에 대한 모델과 의례에 대한 설명적 이론을 두루 담고 있어 중국의 의례 이론을 탐색하는 시발점으로 삼기에 매우 적합한 문헌이다. 『예기』라는 문헌의 형성 배경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는, 공자의 후학들이 『의례(儀禮)』에 규정된 의례들에 대한 해설인 『기(記)』를 작성하였고 그것을 한대(漢代)에 대성(戴聖)이 현재 알려진 49편으로 편집하였다는 것이다.⁴⁾ 그러나 『예기』의 49편 중에서 『의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6편 정도이며, 나머지 편들은 주제나 문장이 통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⁵⁾ 『예기』의 각 편은 여러 다른 시기에 걸쳐 다양한 학문적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그 내용의 기원이나 형성 시기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된다.⁶⁾ 그러므로 『예기』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적인 의례 이론을 전제하는 것은 무리

2) Michael Puett, “Combining the Ghosts and Spirits, Centering The Realm: Mortuary Ritual and Political Organization in the Ritual Compendia Of Early China,” in *Early Chinese Religion Part One: Shang through Han (1250 BC - 220 AD)*, ed. John Lagerwey and Marc Kalinowski (Leiden: Brill, 2009), 719. 중국의 의례 이론을 이론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자는 주장은 이 외에도 Michael Puett, “Ritual Disjunctions: Ghosts, Philosophy, and Anthropology,” in *The Ground Between: Anthropologists Engage Philosophy*, ed. Veena Das, Michael Jackson, Arthur Kleinman, Bhri Gupta Singh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4), 231; Michael Puett, “Critical Approaches to Religion in China,” 100; Michael Puett, “Ritualization as Domestication: Ritual Theory from Classical China,” in *Ritual Dynamics and the Science of Ritual*, Volume I: Grammars and Morphologies of Ritual Practices in Asia, ed. Axel Michaels, Anand Mishra, Lucia Dolce, Gil Raz, and Katja Triplett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0), 365.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Michael Puett, “Combining the Ghosts and Spirits, Centering The Realm,” 719-720.

4) 정병섭, 「『예기(禮記)』 ‘의(義)’ 6편 기문(記文)의 특징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82 (2020): 154.

5) 정병섭, 「『예기(禮記)』 ‘의(義)’ 6편 기문(記文)의 특징에 관한 연구」, 154.

6) 정병섭, 「『예기(禮記)』 ‘의(義)’ 6편 기문(記文)의 특징에 관한 연구」, 154, 174; Jeffrey Riegel, “*Li chi* 禮記,” in *Early Chinese Texts: A Bibliographical Guide*, ed. Michael Loewe (Berkeley, CA: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China and The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1993), 293.

이며,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예기』의 ‘이론’ 역시 단수형 ‘theory’가 아닌 복수형 ‘theories’라고 할 수 있다. 『예기』의 다양한 편장에서 여러 이론적 설명을 발굴하여 로버트슨 스미스의 이론과 비교하는 것이 본고의 목표이다.

더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예기』의 희생제의(sacrifice) 이론들에 주목한다. 『예기』에서 가장 주요하게 거론되는 의례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제사(祭祀)인데, 제사는 희생제의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의례이다. 다음과 같이 『예기』 「제의(祭義)」 편에서 규정하는 종묘 제사 모델을 보면 희생물(犧牲物)의 도축이 제사의 중심적인 절차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종묘(宗廟)의 제일(祭日)에 임금은 생우(牲牛)를 끌고 세자는 이를 도우며 경대부(卿大夫)나 사(士)들은 순서대로 임금을 따른다. 그리고 이미 묘문(廟門)으로 들어서면 돌기둥에 생(牲)을 잡아매고 경대부가 상반신을 벗고 생(牲)의 털을 베어 바치는데 거기에는 귀의 털을 먼저 한다. 다음으로 난도(鬻刀)를 가지고 생을 갈라 장(腸) 근처의 일부분을 잘라 바치고 물러가며 이어서 삶은 고기와 날고기를 조(俎)에 담아 바치고서 물러나는데 이는 묘제(廟祭)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의 지극함이다.⁷⁾

희생물(牲)의 털, 장기 부분, 삶은 고기, 날고기 등을 제사상에 올리는 절차가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사실 ‘제사’라는 명칭 자체에도 희생제의의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후한 시대에 편찬된 자서(字書)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제(祭)’ 자를 설명할 때 “손으로 고기를 쥐는 것(以手持肉)”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⁸⁾ 즉, ‘제’라는 의례의 명칭에도 희생물의 고기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제(祭)’와 ‘사(祀)’는 모두 영어로 ‘sacrifice’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⁹⁾ 그러므로 『예기』의 제사 관련 이론은 중국 고대의 희생제의 이

7) 『신완역 예기(중)』, 이상욱 옮김 (서울: 명문당, 2003), 1178. (본고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상욱의 번역을 그대로 따랐음을 미리 밝혀 둔다.)

『禮記』 「祭義」, “祭之日, 君牽牲, 穆答君, 卿大夫序從. 既入廟門, 麗于碑, 卿大夫袒, 而毛牛尚耳, 鬻刀以割, 取膋膚, 乃退. 爛祭, 祭腥而退, 敬之至也.”

8) 『說文解字』 「示部」, “祭: 祭祀也, 從示, 以手持肉.”

9) ‘제(祭)’와 ‘사(祀)’를 “sacrifice”로 번역하는 것은 일찍이 19세기에 중국의 주요 경서를

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스코틀랜드의 학자 윌리엄 로버트슨 스미스(William Robertson Smith, 1846~1894)는 대표작 『셈족의 종교(*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¹⁰⁾에서 고대 셈족의 사례를 주로 분석함으로써 고대 희생제의 전반에 적용 가능할 이론을 수립하고자 한 바 있다.¹¹⁾ 이 작업은 프레이저(James George Frazer), 뒤르켐(Emile Durkheim), 프로이트(Sigmund Freud) 등의 저명한 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¹²⁾ 그가 『셈족의 종교』에서 “의례의 우선성과 원시사회 내에서 의례의 역할”에 주목한 것은 당시의 인류학과 종교학에 있어 “대단히 새로운 작업”이었다고 평가받으며,¹³⁾ 로버트슨 스미스는 종교사회학과 사회인류학에 큰 영향을 주어 이후 학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인용되는 학자로 여겨지고 있다.¹⁴⁾ 특히 희생제의에 대한 그의 이론은 근대 종교학의 이론들 중 선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의례 이론을 현대의 이론적 담론의 장으로 가져오려 할 때, 먼저 로버트슨 스미스의 이론과의 비교를 시도해 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로버트슨 스미스의 이론이 바탕을 둔 종교 전통은 실천을 중시하는 고대 종교라는 점에서도 또한 유교의 희생제의 이론과 비교 작업을 시도해 볼 만하다. 로버트슨 스미스는 고대의 종교를 ‘교의(dogma)’나 ‘공식화된 믿음(formulated belief)’으로서 바라보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며,¹⁵⁾ 고대의 종교는

영어로 번역한 제임스 레게(James Legge, 1815-1897)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임스 레게의 번역은 『中英對照四書』, James Legge 譯註 (臺北: 文化圖書公司, 1960) 외에도 단행본으로 출간된 다수와 인터넷의 ctext.org에 실린 내용 등을 통해 접할 수 있다. 근래에도 제(祭)와 사(祀)를 “sacrifice”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0) 1889년에 초판, 1894년에 2판, 1927년에 3판이 발행되었다. 본고에서는 2판을 참고하였다.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London: Adam and Charles Black, 1894).

11)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214-215.

12) T. O. Beidelman, *W. Robertson Smith and the Sociological Study of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57-61.

13) 에릭 샤프(Eric J. Sharpe), 『종교학의 전개』, 유요한·윤원철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7), 93.

14) 에릭 샤프, 『종교학의 전개』, 93.

개인 영혼의 안녕을 위해 영적인 신념을 갖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보았다.¹⁶⁾ 그는 또한 고대 종교란 개인이 임의로 신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구성원들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힘과 관계 맺는 것이었다고 보았다.¹⁷⁾ 이처럼 사람들이 따르는 사회적 질서 체계의 일환으로서 종교를 바라보는 것은¹⁸⁾ 유교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관점이다. 유교 사회는 특정 세계관에 대한 믿음보다도 의례 질서와 규범의 준수가 강하게 요청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¹⁹⁾ 나아가 『예기』의 내용은 통상적으로 중국 ‘고대’라 지칭되는 시기에 기반을 둔 것으로,²⁰⁾ 『예기』의 본문에서는 하나라(夏), 은나라(殷), 주나라(周)의 매우 오래된 의례 관습을 종종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따라서 로버트슨 스미스와 『예기』는 공통적으로 ‘고대’ 종교의 ‘희생제의’에 대한 이론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본고에서는 『예기』의 내용이 현대의 의례 이론과 어떻게 상호보완될 수 있는지를 살펴 추후의 의례 이론 연구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로버트슨 스미스와 『예기』 이론의 유사한 부분, 『예기』 이론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예기』 이론이 한계를 보이는 부분 등을 탐색하여 『예기』의 내용을 종교 연구의 ‘대상’이 아닌 종교 연구를 위한 ‘이론’의 일부로 탐색하고자 한다.

15)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28.

16)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29.

17)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55.

18)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30.

19) 최종성, 「조선전기 종교혼합과 反혼합주의」, 『종교연구』 47 (2007): 48.

20) 통상 중국의 상나라(商)에서 진·한(秦·漢) 시대까지를 고대(古代)라고 지칭하곤 하며, 현재 알려진 『예기』의 49편은 한나라 시대에 편집된 것으로 여겨진다. 각각의 편장의 내용은 그 편집 시기보다 더 기원이 이른 경우도 많다고 볼 수 있다.

II. 로버트슨 스미스와 『예기』의 희생제의 이론의

유사성: 공동체·공공성

로버트슨 스미스와 『예기』의 희생제의 이론에서는 유사한 점을 많이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공동체에 대한 유사한 관점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로버트슨 스미스에 따르면 고대의 사회라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신들 또한 구성원으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체였다.²¹⁾ 한 개인이 태어남과 동시에 속하게 되는 집단은 동족들 혹은 이웃 주민들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가족신, 국가신 등 특정한 신적 존재들을 포괄하는 단위의 공동체였다는 것이다.²²⁾ 로버트슨 스미스는 고대 사회에서의 신들과 그 숭배자들 사이의 관계는 비유적인 의미에서가 아닌 실제적인 의미에서 마치 인간관계와 유사하게 이해되었다고 본다.²³⁾ 예컨대, 어떤 신이 그 숭배자들의 ‘아버지’로 불리었다면, 그것은 실제로 그 신과 숭배자들이 상호 의무를 짊어지는 ‘가족’의 관계로 여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²⁴⁾

또 로버트슨 스미스에 의하면 고대적 관념에서의 ‘친족’이라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의 혈관 속에 같은 피가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였다.²⁵⁾ 그는 ‘피’는 곧 ‘생명’으로서, 같은 조상으로부터 전해진 피를 공유한다는 것은 같은 ‘생명’을 공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한다.²⁶⁾ 그러므로 고대의 관념에서는 하나의 종족이 그 자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종족 내 개개인들의 생명은 전체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것이다.²⁷⁾ 그만큼, 같은 피로써 결속된다는 것은 고대인들에게는 의심의 여지 없는 강력한 사회적 연대를 이룬다는 의미였다.²⁸⁾ 피의 결속으로써 연대를 형성하는 것은 인간 사이에서만 아니라

21)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29.

22)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29.

23)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29.

24)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29-30.

25)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40.

26)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40-41.

27)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40-41.

라 특정 신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활용되었다.²⁹⁾ 바로 희생제의가 이러한 피의 결속 행위로 제시되는데, 로버트슨 스미스는 희생제의란 신에게 어떤 선물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신과 그 숭배자들이 함께 신성한 제물의 살점과 피를 먹음으로써 결속하는 교류(communion)의 행위”였다고 말한다.³⁰⁾ 희생제의에서 공동의 음식을 생명의 자양분으로 삼음으로써 공동의 생명(common life)을 강화한다는 것이다.³¹⁾

인간과 신을 모두 포괄하는 단위로서의 공동체 관념은 『예기(禮記)』 속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예기』에서는 한 사람이 순응해야(順) 할 중요한 대상들로, “위로는 귀신”이, “밖으로는 임금”이, “안으로는 부모”가 있다고 보았다.³²⁾ 즉, 한 개인은 인간과 신적 존재를 포괄한 집단 범위 내에 연결되어 일정한 의무를 지녔던 것이다. 또한 ‘예(禮)’라는 것은,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서,³³⁾ “신뢰와 친목을 두텁게” 하며 “단결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사회적 실천으로 서술된다.³⁴⁾ 그런데 그 중에서 “제사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고 여겨졌으니,³⁵⁾ ‘예’란 사람뿐만 아니라 신들을 포괄하는 사회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예기』에서도 신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와 유사하게 이해되었던 것이다.

28)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32.

29)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51.

30)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226-227. (“an act of communion, in which the god and his worshippers unite by partaking together of the flesh and blood of a sacred victim.”)

31)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275.

32) 『신완역 예기 (하)』, 이상옥 옮김 (서울: 명문당, 2003), 1218.

『禮記』 「祭統」, “上則順於鬼神, 外則順於君長, 內則以孝於親.”

33) 『신완역 예기 (하)』, 1217.

『禮記』 「祭統」, “凡治人之道, 莫急於禮.”

34) 『신완역 예기 (중)』, 649.

『禮記』 「禮運」, “故禮義也者, 人之大端也, 所以講信修睦而固人之肌膚之會, 筋骸之束也.”

35) 『신완역 예기 (하)』, 1217.

『禮記』 「祭統」, “禮有五經, 莫重於祭.”

또한 생명의 원천을 공유한다는 공동체 관념도 『예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기』의 이론에서도 희생제의를 치르는 자들은 제의의 대상을 생명의 원천으로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제사는 공동의 생명의 원천이 명시되는 행사로 여겨졌다. 제사란 존재의 ‘근본에 대해 보답하며 시초를 되돌아보는’ 의미로 서술되는데(報本反始)³⁶⁾ 이것은 ‘자신의 생명이 유래한 곳이 어딘지를 잊지 않는다’는 것(不忘其所由生)³⁷⁾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주요 제사의 대상인 ‘하늘’은 “만물의 근본”으로 말해지고 있으며,³⁸⁾ 나라의 중심인 ‘사(社)’³⁹⁾는 생명의 “근본”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⁴⁰⁾ 제사 대상인 신적 존재들과 그 숭배자들, 즉, 제사에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생명의 뿌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일종의 ‘생명 공동체’로 상정되었음을 볼 수 있다.

로버트슨 스미스와 『예기』의 이론 모두 희생제의를 통해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서의 집단이 확인된다고 보았다. 공동체에 대한 유사한 이론은 희생제위의 특징에 대한 유사한 견해로 이어진다. 로버트슨 스미스와 『예기』의 이론은 공통적으로 희생제위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선 로버트슨 스미스에 따르면 희생물의 도축은 마치 공동체 구성원을 살해하는 경우와도 같이 오로지 공동의 합의와 참여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이었고,⁴¹⁾ 희생물은 인간이 사적으로 유용할 수 없는 동물이었다.⁴²⁾ 다만 그렇다고 신이 ‘소유’한 동물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⁴³⁾ 고대의 관념에서 신의 이해관계는 그 신을 섬기는 공동체의 이해관계와 거의 동일한 것이었으므로,⁴⁴⁾ 그 숭

36) 『禮記』「郊特牲」, “郊之祭也, 大報本反始也.”

37) 『禮記』「祭義」, “君子反古復始, 不忘其所由生也.”

38) 『신완역 예기 (중)』, 714.
『禮記』「郊特牲」, “萬物本乎天”

39) ‘땅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다.

40) 『신완역 예기 (중)』, 709.
『禮記』「郊特牲」, “社所以神地之道也。地載萬物, 天垂象。取財於地, 取法於天, 是以尊天而親地也, 故教民美報焉。家主中溜而國主社, 示本也。”

41)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284-285.

42)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143.

43)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143, 288-289.

배자들이 공유할 수 없는 것을 신이 독점적으로 점유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⁴⁵⁾ 신에게 바쳐진 신성한 제물들은 신의 사적인 사용을 위하여 따로 비축해 두지 않았고 모든 이들이 참여하는 만찬에 공급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한다.⁴⁶⁾ 또한 신은 인간에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몫을 제공하는 존재로는 여겨지더라도, 사적인 필요에 대해 도움을 주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며, 특히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않는 존재로 여겨졌다고 한다.⁴⁷⁾ 이처럼 신의 이해관계란 곧 공동체의 이해관계였으므로,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질서는 신성성을 가졌으며 질서의 위반은 곧 신성성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다고 로버트슨 스미스는 말한다.⁴⁸⁾ 그는 고대적 관념에서의 ‘성스러운(sacred)’ 목적과 ‘공공의(public)’ 목적이라는 것은 엄밀한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었다고 보았다.⁴⁹⁾

『예기』에서도 여러 군데의 서술에서 희생제의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교묘(郊廟)의 제사를 봉행하는 데 “사(私)가 있어서 안 된다”는 『예기』 「월령(月令)」 편 서술⁵⁰⁾에서 그것이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제사라는 행사는 ‘공공’의 행사로서, ‘사사로움’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앞서도 보았듯, 제사란 그 참여자들 공동의 생명의 원천과 관계된 행사로서, 다음과 같이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개입하는 중대한 일로 이해되었다.

사[*社]의 제사는 땅을 신성한 것으로서 공경하는 방법이다. 땅은 만물을 신고, 하늘은 해와 별을 매달며, 사람은 땅에서 자재를 취하고 하늘에서 법칙을 배운다. … 사의 제사에는 한 마을 사람이 모두 나와 제사를 돕고, 사를 위한 사냥에는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나가서 돕는다.⁵¹⁾ (*대괄호는 인용자)

44)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147.

45)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147.

46)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147.

47)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264.

48)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154.

49)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147.

50) 『신완역 예기(상)』, 이상옥 옮김 (서울: 명문당, 2003), 507.

『禮記』 「月令」, “以給郊廟之事, 無有所私.”

또 『예기』에서 말하는 제사의 대상을 제정하는 기준에서도 공공의 이익에 기여한 정도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었다. 제사를 받는 신령으로 모셔지는 존재들은 백성에게 큰 도움을 제공한 사람들이었다.

대체로 성왕(聖王)이 어떤 신령의 제사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전에 선정양법(善政良法)을 백성에게 베푼 자를 제사지낸다. 또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일에 힘쓴 자를 제사지낸다. 노고를 아끼지 않고 국가를 안정시킨 자를 제사지낸다. 큰 재해(災害)를 예방하고 구출한 자를 제사지낸다. 큰 국난(國難)을 예방하고 물리친 자를 제사지낸다. ... 52)

이에 더하여 “제후는 까닭 없이 소를 잡지 않으며, 대부는 까닭 없이 양(羊)을 잡지 않고, 사(士)는 까닭 없이 개·돼지를 잡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희생제의의 공공성이 엿보인다.⁵³⁾ 동물들을 잡는 것은 ‘예’로써 행해지도록 요구되는 사안이었으며, 종묘 제사와 같은 특별한 목적 없이는 함부로 행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동물을 살육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에 부합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으로, 다름 아닌 제사나, 타국 제후의 방문으로 빈객 접대가 요청될 때 등과 같이 규모가 큰 공적 사안이 있을 때였다.⁵⁴⁾ 제사를 위해 도축된 동물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거나 하사되곤 했다는 점에서도 역시 동물의 살육이 주를 이루는 희생제의로서 제사가 ‘공공성’을 띤 행사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

51) 『신완역 예기 (중)』, 708-709.

『禮記』「郊特牲」, “社所以神地之道也。地載萬物, 天垂象。取財於地, 取法於天, 是以尊天而親地也, 故教民美報焉。家主中溜而國主社, 示本也。唯爲社事, 單出里。唯爲社田, 國人畢作。”

52) 『신완역 예기 (중)』, 1162.

『禮記』「祭法」, “夫聖王之制祭祀也, 法施於民則祀之, 以死勤事則祀之, 以勞定國則祀之, 能御大畜則祀之, 能捍大患則祀之。”

53) 『신완역 예기 (상)』, 414.

『禮記』「王制」, “諸侯無故不殺牛, 大夫無故不殺羊, 士無故不殺犬豕。”

54) 『禮記』「王制」, “祭天地之牛, 角繭栗。宗廟之牛, 角握。賓客之牛, 角尺。” (“천지의 신을 제사지내는 소는 어린 소로써 그 뿔이 누에고치나 밤알 정도로 돋은 송아지를 쓰며, 종묘의 제사에는 뿔이 한 줌[握]쯤 되는 송아지를 쓰고, 빈객을 접대하는 소는 뿔이 한 자[尺] 정도 자란 큰 소를 쓴다.” 『신완역 예기 (상)』, 414.)

할 수 있다.⁵⁵⁾

『예기』 「제통(祭統)」 편에서 제사에 의해 얻게 되는 결과로 제시하는 ‘복(福)’ 개념에서도 희생제의의 공공성에 대한 관념을 볼 수 있다. 여기서의 복이란 세간에서 말해지는 것과 같은 의미로서의 복이 아님이 명시되고 있는데,⁵⁶⁾ 이것은 「예기(禮器)」 편에서의 “제사에서는 개인의 복을 빌지 않는다(祭祀不祈)”는 말과 상통한다.⁵⁷⁾ 「제통(祭統)」 편에서는 제사의 결과로서의 ‘복’이란 “비(備)이고, 이 비(備)란 만사가 [구비(具備)되어서] 순조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모두 순조롭지 않은 곳이 없는 상태를 비(備)[구비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서술한다.⁵⁸⁾ 즉 제사를 통해 얻는 복이란 광범위하게 미치는 ‘순조로움’이라는 것이다. 역시 제사의 공공적 성격을 부각하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예기』 「제의(祭義)」 편에서는 ‘예’의 목적을 논하는 부분에서 “친화(親和)를 증대하고 재물의 이용을 촉진하는 것”⁵⁹⁾, 그리고 이를 통해 “서민의 생활 원칙이 확립”되는 것⁶⁰⁾ 등이 거론된다. 제례(祭禮) 또한 이에 예외가 아니므로, 정리하자면 『예기』에서도 희생제의의 공공적 특징을 강조하는 이론들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Ⅲ. ‘위계성’을 보다 강조하는 『예기』의 희생제의 이론

한편 『예기』의 이론들은 로버트슨 스미스의 이론에 비해 의례 내에 있을 수

-
- 55) 다만 이때 더 상급의 지위를 가진 자가 더 귀한 부위를 가져갔으며, 아랫급의 지위의 가진 자는 더 하등의 부위를 가져갔다. 『禮記』 「祭統」, “俎者, 所以明祭之必有惠也. 是故, 貴者取貴骨, 賤者取賤骨.”
- 56) 『禮記』 「祭統」, “賢者之祭也, 必受其福. 非世所謂福也. … 不求其爲, 此孝子之心也.”
- 57) 『禮記』 「禮器」, “君子曰: 祭祀不祈”
- 58) 『신완역 예기 (하)』, 1218.
『禮記』 「祭統」, “福者, 備也. 備者, 百順之名也. 無所不順者, 謂之備.”
- 59) 『신완역 예기 (중)』, 1180.
『禮記』 「祭義」, “致和用也”
- 60) 『신완역 예기 (중)』, 1181.
『禮記』 「祭義」, “致物用, 以立民紀也.”

있는 차이와 구분, 위계 등을 논할 때 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 로버트슨 스미스의 경우, 고대의 친족 관계에서 의무라는 것은 관계의 정도(degrees)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부족 내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동일하고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⁶¹⁾ 그러나 『예기』에서는 예컨대 한 종족 내에서도 친연성의 정도는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다.

인애(仁愛)의 정신으로 선조를 대한다 해도 세대(世代)를 거슬러 올라감에 따라 가벼워지는 것이며, 의리에 의해 선조를 존경할 때는 [먼 선조일수록 존경하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이며] 세대를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가벼워지는 것이다. 그런 관계로 사람의 자연적인 심정으로서 친연(親緣)이 가까울수록 친하고, 따라서 친연이 발생하는 원천으로서 조상을 존경하며, 따라서 조상의 직계인 종자를 공경하고, …⁶²⁾

또한 『예기』에서 볼 수 있는 공동체는 비록 공동의 생명의 원천을 지닌다는 점에서 동일성의 요소를 내포하지만, 그 구성원들이 이루는 네트워크의 형태는 수직적이다. 『예기』 「제통(祭統)」 편에서는 아래와 같이, 제사를 통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생명의 원천과 자양분을 공유하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생명이 ‘위계적’으로 흐른다는 것 또한 명확해진다. 이것은 ‘준(餼)’이라는, 제사의 마지막 절차에 대한 서술에서 강조된다. ‘준’은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절차이다. 제사에서 신을 대신하여 제사 음식을 섭취하는 역할의 사람인 ‘시(尸)’가 음식 먹기를 마치면, 임금과 삼경(三卿)이 음식을 이어받아 먹고, 다음으로 또 그 아래의 신하들이 남은 것을 먹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제례 끝에 시(尸)가 먹기를 끝내고 일어서면 다음으로 임금과 삼경(三卿)의

61)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273.

62) 『신완역 예기 (중)』, 913.

『禮記』 「大傳」, “自仁率親, 等而上之, 至于祖. 自義率祖, 順而下之, 至於禰. 是故, 人道親親也. 親親故尊祖, 尊祖故敬宗, …”

4명이 시의 준을 먹고 임금이 일어서면 대부 6명이 먹는다. 이것은 신하가 임금이 먹다 만 것을 먹는 셈이 된다. 그리고 대부들이 일어서면 사(士) 8명이 먹는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먹다 만 것을 먹는 셈이 된다. 팔사(八士)가 일어서서 각기 먹다 만 것을 들고 제장(祭場)을 나와 당하(堂下)에 그것을 늘어놓으면 백관(百官)이 그것을 모두 먹고 그릇을 치운다. 이것은 하급자가 상급자의 먹다 만 것을 먹는 셈이 된다.⁶³⁾

위의 발췌문에서 알 수 있듯, 제사 음식은 모두가 나누어 먹기는 하지만 위계적 순서에 의거해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것으로 서술된다. 이 같은 ‘준’의 절차는 “귀천(貴賤)을 나누고 혜여(惠與)의 모범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 설명되는데,⁶⁴⁾ 은덕이 “상위 상급자에게 먼저 베풀어지고 하위 하급자는 그 다음이 된다는” 것⁶⁵⁾, 즉 “상위 상급자에게 은덕이 베풀어진다면 백성이 모두 아래에서 기다리게 되고 반드시 혜여(惠與)가 미친다는 것”⁶⁶⁾을 보이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의 마지막 절차로서 참여자들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과정은 단지 공동의 물질을 생명의 자양분으로 삼는다는 것뿐 아니라, 생명의 자양분이 위에서 아래의 방향으로 위계적 순서에 따라 전해 내려진다는 것을 명시하는 과정으로, 참여자들이 ‘위계적’ 생명 질서를 가진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드러내는 절차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개개인은 신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상급자들까지 일종의 생명의 원천으로 두게 되고, 아래로는 자신으로부터 생명의 자양분을 공급받는 자들을 두게 되는 것이다.

63) 『신완역 예기 (하)』, 1229.

『禮記』「祭統」, “是故尸饗, 君與卿四人餽. 君起, 大夫六人餽. 臣餽君之餘也. 大夫起, 士八人餽. 賤餽貴之餘也. 士起, 各執其具以出. 陳于堂下, 百官進, 徹之, 下餽上之餘也.”

64) 『신완역 예기 (하)』, 1229.

『禮記』「祭統」, “興施惠之象也”

65) 『신완역 예기 (하)』, 1229.

『禮記』「祭統」, “是故上有大澤則惠必及下”

66) 『신완역 예기 (하)』, 1229.

『禮記』「祭統」, “是故上有大澤, 則民夫人待于下流, 知惠之必將至也.”

제사에서 희생물의 생육(牲肉)이 사람들에게 배분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예기』에서는 위와 같은 위계적 특징을 강조한다. 제사에 진설되었던 뼈 붙은 고기는 부위별로 귀천이 따로 있었는데 “상위(上位)인 자가 상등의 고기를 취하고 하위는 하등의 고기를 취하”는 것이라고 서술된다.⁶⁷⁾ 또 제사 말미에 임금이 술을 하사하는 절차에서는 “모든 관원이 모두 연령순으로 술잔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며, 이는 “제례를 통해서 장유(長幼)간의 질서를 지시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⁶⁸⁾

로버트슨 스미스는 희생제외에 뒤따르는 만찬을 통해 참여자들이 함께 식사를 즐기면서 한층 흥분되는 상태(excitement)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⁶⁹⁾ 신은 숭배자들을 자신의 식탁에 받아들임으로써 그들과의 우정을 승인하고,⁷⁰⁾ 숭배자들은 그들의 신 앞에 모여 함께 기뻐한다는(rejoice) 것이다.⁷¹⁾ “엄숙한 숭배 행위(solemn act of worship)”라는 표현도 사용되기는 하나,⁷²⁾ 로버트슨 스미스가 묘사하는 희생제외의 성격은 전반적으로 환희로 가득하고(“Universal hilarity prevailed”) 즐거운(merry)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⁷³⁾ 그러나 『예기』의 제사는 ‘즐기는 것’과는 거리를 두는 성격의 행사로 설명된다.

선왕이 제물로 바치는 식품은 먹을 수는 있으나 즐겨 먹을 만한 것은 아니다. 곤룡포(袞龍袍)와 면류관과 노거(路車)는 별려놓을 수는 있으나 [제례(祭禮)를 풍요하게 하기 위해 사용될 뿐이고]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 대무(大武)의 춤은 장용(壯勇)하고 아름답지만 이것도 사람들의 오락으로 연주되는 것은 아니다. 제물 등을 바쳐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은 모두

67) 『신완역 예기 (하)』, 1238.

『禮記』「祭統」, “貴者取貴骨, 賤者取賤骨.”

68) 『신완역 예기 (하)』, 1238.

『禮記』「祭統」, “凡群有司, 皆以齒, 此之謂長幼有序.”

69)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263.

70)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265.

71)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263.

72)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263.

73)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254.

종묘에 위엄이 있게 하기 위함이지 사람들 쪽을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 종묘에 사용하는 기구는 모두 실용적으로 적합한 것이지만 사람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신에게 성의를 다 바쳐 사귀기 위해서는 그 제례(祭禮)나 예법에 대해서 인간의 안락(安樂)을 연결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74) (강조는 인용자)

제사에서 추구되어야 할 바는 ‘안락’이나 ‘즐거움’이 아닌 ‘위엄’이라고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과 신이 함께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의 구분이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차이가 강조되는 의례로 제사가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IV. 희생물의 ‘피’에 대한 설명 비교: 로버트슨 스미스, 『예기』, 그리고 낸시 제이

이번에는 희생제의에 대한 이론적 담론의 장에서 『예기』가 가질 수 있는 상대적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앞서도 보았듯, 로버트슨 스미스는 고대의 공동체란 ‘피’처럼 같은 물질적 구성을 공유하는 구성원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⁷⁵⁾ 공동체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에 물질적 조건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로버트슨 스미스는 이러한 고대의 공동체를 ‘물리적 통합체(physical unity)’라고 표현하기도 한다.⁷⁶⁾ 공동체의 형성 자체가 물리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74) 『신완역 예기 (중)』, 720-721.

『禮記』「郊特牲」, “先王之薦, 可食也而不可耆也. 卷冕路車, 可陳也而不可好也. 武壯, 而不可樂也. 宗廟之威, 而不可安也. 宗廟之器, 可用也而不可使其利也, 所以交於神明者, 不可以同於所安樂之義也.”

75)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40-41.

76)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40. (본고에서 로버트슨 스미스의 “physical unity”라는 표현을 ‘물리적 통합체’로 번역한 것은, 하나의 ‘단위(unit)’로서의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는 ‘unity’를 ‘동질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같은 책 85쪽의 “the worshipped and the worshippers are parts not only of one social community but of one physical unity of life”와 같은 구절에

다는 이러한 설명은 희생제의의 핵심인 희생물의 살육과 섭취가 계속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강점을 갖는다. 로버트슨 스미스에 의하면, 이미 결속 관계를 형성했다라도, 구성원들의 몸과 피의 성분 에 영향을 끼치는 온갖 요인들로 인해 물리적 동질성이 변질될 수 있었으므로 이따금씩 결속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⁷⁷⁾ 또한 기근, 역병 등의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신과의 연대가 깨지거나 약화되었다고 판단하여 다시 신과 결속할 필요성을 느끼기도 했다고 한다.⁷⁸⁾ 신과 인간 공동체의 결속 을 확인하거나 다시 다질 필요가 있을 때마다 희생제의가 행해졌다는 것이다. 신과 그 숭배자들은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연대를 선언하고 봉인하였다.⁷⁹⁾ 다른 생명체의 피나 살점을 섭취함으로써 그 생명을 취한다는 관념⁸⁰⁾에 따라 희생 동물의 살육과 섭취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로버트슨 스미스는 희생 동물의 피와 살을 공유한다는 것은 단지 포용이나 어루만짐 등을 통해 성스러운 대상과 접촉하는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 것으로 생각 되었다고 본다.⁸¹⁾ 같은 음식을 생명의 자양분으로 삼음으로써 공동의 생명 (common life)을 강화하는 것으로,⁸²⁾ 정리하자면 결속하고자 하는 대상들 간에 서로 같은 구성물을 몸속에 지녀 서로를 물리적으로 결속시키는 것, 다시 말해 하나의 생명 공동체로 묶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예기』에서는 날고기와 피의 진설을 수반하는 희생제의의 특징을 설명하는 논리로 인간적 정서에서 멀게 하여 ‘지극함’을 표하는 것이라거나, ‘생기의 왕성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이 제시된다.

서는 ‘통합체’,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강하지만, 406쪽의 “the mystic unity of life in the religious community is liable to wear out”과 같은 구절에서는 ‘동질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77)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319.

78)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320.

79)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271.

80)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313.

81)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322.

82)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275.

군자가 말하기를, “예로써 인정에 가까운 것은 예의 **지극한 것이** 아니다. 교사(郊祀)에서는 먼저 피를 진설하고 대향(大饗)에서는 먼저 생육(生肉)을 진설하며 삼헌(三獻)에서는 뜨거운 물에 데친 고기를 함께 올리고 일헌(一獻)에는 익힌 고기만을 올린다.”라고 했다.⁸³⁾ (강조는 인용자)

「예기(禮器)」편의 위 내용은 피와 생고기의 진설 이유를 인간의 정감과 먼 것을 높은 예(禮)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다음의 「교특생(郊特牲)」편의 내용에서는 피가 갖는 생명력의 함의에 주목하고 있다.

모혈(毛血)을 바치는 것은, 희생의 몸체가 안팎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것은 신이 **순수함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또 희생의 피를 바치는 것은 **생기가 왕성함을** 존귀하게 여길 경우이다. 폐·간·심장 등을 바치는 것은 **생기의 근원이 되는 부분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⁸⁴⁾ (강조는 인용자)

이러한 설명들은 충분히 그 자체로 희생제의에서 희생물을 살육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희생제의의 핵심인 희생물의 살육과 섭취가 계속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하거나, 희생물 살육을 희생제의의 공공성이나 사회적인 결속이라는 요소들과 매끄럽게 연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예기』 「제의(祭義)」에서는 제사의 의미로 “사람들에게 서로 경애(敬愛)하고 상하가 친화하는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라 설명하며, 「예운(禮運)」편에서는 ‘예(禮)’를 행함으로써 단결을 다진다는 것은 하나의 몸 안의 기관들이 서로의 결속을 다지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⁸⁵⁾

83) 『신완역 예기 (중)』, 678.

『禮記』 「禮器」, “君子曰: 禮之近人情者, 非其至者也. 郊血, 大饗腥, 三獻爛, 一獻孰.”

84) 『신완역 예기 (중)』, 737.

『禮記』 「郊特牲」, “毛血, 告幽全之物也. 告幽全之物者, 貴純之道也. 血祭, 盛氣也. 祭肺肝心, 貴氣主也.”

85) 『禮記』 「禮運」, “故禮義也者, 人之大端也. 所以講信修睦而固人之肌膚之會, 筋骸之束也.” (“인간은 예를 행함으로써 서로 신뢰와 친목을 두텁게 할 수가 있고, 단결을 튼튼하게 할 수가 있다. 그것은 마치 개인의 몸에 있어서 피부나 근육이나 뼈 등의 연결(連接)이나 결속(結束)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생명을 계속 강하게 하는 것과

『예기』 내에서도 의례, 특히 제사가 관계의 결속을 다진다는 사고가 일반적으로 보이지만, 희생물의 살육이라는 희생제의를 중심 절차가 어떻게 결속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이라기보다는 우회적이다. 위의 두 발췌문은 희생물을 통해 ‘지극함,’ ‘순수함,’ ‘존귀함’ 등을 표현함으로써 신과의 관계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라는 정도로 읽을 수 있다.

‘피’를 수반하는 희생제의를 사회적 결속에 기여하는 배경에 대한 이론으로는 로버트슨 스미스의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완한 낸시 제이(Nancy Jay)의 이론이 주목할 만하다. 낸시 제이는 부계 사회는 결코 로버트슨 스미스가 말하는 ‘생명의 물리적 통합체(physical unity of life)’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⁸⁶⁾ 모계 사회의 경우,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는 출생만으로도 확실하게 결정될 수 있다.⁸⁷⁾ 그러나 부계에서의 친자 관계는 결코 모계에서만만큼의 자연적 확실성을 갖지 않으며 출생 자체가 부계 사회의 구성원 자격을 부여하는 증거 혹은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낸시 제이는 지적한다.⁸⁸⁾ 이로부터 부계 집단에서 피의 희생제의(blood sacrifice)에 대한 참여가 요청되는 것이고 희생제의를의 참여로 부계 사회의 질서를 비로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⁸⁹⁾ 비록 『예기』를 로버트슨 스미스의 이론과 비교하는 본고의 목표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기는 해도, 이와 같은 낸시 제이의 이론은 현대의 의례 이론의 장에서 『예기』가 가질 수 있는 약점을 상기시켜 주기에 언급하였다. 즉, 『예기』의 이론은 희생제의를가 이루어지는 사회의 근본적인 한계 조건을 파헤친 뒤 그에 기초하여 피를 수반하는 희생제의를의 필연성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비슷하다.” (『신완역 예기 (중)』, 649.)

86) Nancy Jay, *Throughout Your Generations Forever: Sacrifice, Religion, and Patern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34.

87) Nancy Jay, *Throughout Your Generations Forever*, 36.

88) Nancy Jay, *Throughout Your Generations Forever*, 36.

89) Nancy Jay, *Throughout Your Generations Forever*, 36.

V. 결론

본고는 의례에 대한 유교 경전인 『예기(禮記)』의 내용을 종교 연구의 ‘대상’이 아닌 종교 연구를 위한 ‘이론’으로 바라보며 현대 이론의 장으로 가져오는 시도를 해 보았다. 특히 『예기』의 희생제의(sacrifice) 이론들에 주목하여 로버트슨 스미스(W. Robertson Smith)의 희생제의 이론과 비교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우선 로버트슨 스미스와 『예기』의 희생제의 이론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 관념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하였다. 즉 신과 인간을 포괄하며 생명의 근원을 공유하는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공동체 관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로버트슨 스미스와 『예기』의 이론 모두 희생제의의 특징으로 ‘공공성’을 강조한다는 점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예기』의 이론이 로버트슨 스미스의 이론에 비해 의례 내의 차이와 구분, 위계 등을 드러내는 것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예기』의 이론이 희생물의 도축과 섭취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나 희생제의가 요청되는 사회의 근본적 조건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약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고에서는 『예기』의 내용이 현대의 의례 이론과 어떻게 상호보완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예비적으로 고찰하여 추후의 의례 이론 연구를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다.

주제어: 『예기(禮記)』, 희생제의, 로버트슨 스미스(W. Robertson Smith), 『셈족의 종교(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공동체, 위계성, 피, 의례 이론, 종교 이론

투 고 일: 2022. 11. 07.

심사종료일: 2022. 11. 25.

게재확정일: 2022. 11. 29.

참고문헌

『禮記』

『說文解字』

샤프, 에릭(Eric J. Sharpe). 『종교학의 전개』. 유효한·윤원철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7.

『신완역 예기 (상)』. 이상옥 옮김. 서울: 명문당, 2003.

『신완역 예기 (중)』. 이상옥 옮김. 서울: 명문당, 2003.

『신완역 예기 (하)』. 이상옥 옮김. 서울: 명문당, 2003.

정병섭. 「『예기(禮記)』 ‘의(義)’ 6편 기문(記文)의 특징에 관한 연구」. 『유교사상문화연구』 82 (2020): 151-176.

최종성. 「조선전기 종교혼합과 反혼합주의」. 『종교연구』 47 (2007): 37-81.

『中英對照四書』. James Legge 譯註. 臺北: 文化圖書公司, 1960.

Beidelman, T. O. *W. Robertson Smith and the Sociological Study of Relig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Jay, Nancy. *Throughout Your Generations Forever: Sacrifice, Religion, and Patern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Puett, Michael. “Combining the Ghosts and Spirits, Centering The Realm: Mortuary Ritual and Political Organization in the Ritual Compendia Of Early China.” In *Early Chinese Religion Part One: Shang through Han (1250 BC - 220 AD)*, edited by John Lagerwey and Marc Kalinowski, 695-720. Leiden: Brill, 2009.

_____. “Critical Approaches to Religion in China.” *Critical Research on Religion* 1 (2013): 95-101.

_____. “Ritual Disjunctions: Ghosts, Philosophy, and Anthropology.” In *The Ground Between: Anthropologists Engage Philosophy*, edited by Veena Das, Michael Jackson, Arthur Kleinman, Bhrigupati Singh, 218-233.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14.

_____. “Ritualization as Domestication: Ritual Theory from Classical China.” In *Ritual Dynamics and the Science of Ritual*, Volume I: Grammars and

Morphologies of Ritual Practices in Asia, edited by Axel Michaels, Anand Mishra, Lucia Dolce, Gil Raz, and Katja Triplett, 365-376.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0.

Riegel, Jeffrey. "Li chi 禮記." In *Early Chinese Texts: A Bibliographical Guide*, edited by Michael Loewe, 293-297. Berkeley, CA: Society for the Study of Early China and The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1993.

Smith, W. Robertson.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London: Adam and Charles Black, 1894.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n the *Liji*'s Theories of Sacrifice: Focusing on a Comparison with W. Robertson Smith's Theory

Ahn, Ji Yeon (Seoul National Univ.)

This is a preliminary attempt to bring the *Liji* (禮記), one of the Confucian classics, into contemporary discussions on ritual theories. By viewing the *Liji* not as an object of religious studies but as a repository of theories for research,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theories of sacrifice found in the *Liji* with W. Robertson Smith's theory of sacrifice. Both Robertson Smith and the *Liji* demonstrate the concept of the ancient community as a group bound by a shared source of life which includes not only humans but also spiritual beings as its members. Accordingly, the theories of Robertson Smith and the *Liji* similarly present sacrifice as an activity inherently public in nature in which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are meant to strengthen their bonds. However, the *Liji*'s theories of sacrifice differ from Robertson Smith's in that the former puts much more emphasis on the hierarchies in sacrifices. Therefore, the *Liji*'s theories can act as valuable references when it comes to discussions on the differences and distinctions in rituals. On the other hand, the theories of the *Liji* may have a weakness in explaining the social background in which the slaughtering and blood-shedding of sacrificial victims can acquire fundamental importance.

Keywords: *Liji* (禮記), *Book of Rites*, sacrifice, W. Robertson Smith, *Lectures on the Religion of the Semites*, community, hierarchy, blood, ritual theory, religious theory